

예능 대세 '미우세' 인기 고공행진

시청률 20% 넘나들며 1위

'절약 DNA' 김중국 등장 화제

'엄마들' 리액션에 공감대 형성

SBS TV '미운 우리 새끼'가 시청률 20%를 넘나들며 '현존 최고 예능'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8월 시작한 '미운 우리 새끼'는 온갖 관찰 예능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2년째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청률 10%가 어려운 시대에 '미운 우리 새끼'는 20%를 넘나들고 있고, 광고주들이 주목하는 2049 시청률에서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 남녀노소가 '본방 사수' ... 시청률 20%의 괴력 일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는 일요일 최강자인 것은 물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 최고 인기다.

지난 8일 방송된 82회에서 시청률 16.5%~20.4%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20%를 다시 넘어선 '미운 우리 새끼'는 화제성이 떨어질 만하면 적절한 선수교체와 게스트 섭외로 계속해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던 '미운 우리 새끼'는 2017년 4월 일요일 밤 9시15분으로 자리로 옮기면서 고민이 많았다. 금요일 밤에 잘하고 있는데, 젊은층의 호응도 좋는데, 일요일로 시간을 옮겼다가 자칫 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제작진 사이에서 썩었다.

그러나 '미운 우리 새끼'는 자리를 옮기자마자 시청률이 상승세를 타더니 한달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했고, 이후 종종 20%를 넘어서는 괴력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편성 변경이 시청층을 넓히는 신의 한수가 됐다. 남녀노소가 '본방 사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 적절한 선수교체 ... 김중국 신선한 화제물이 요즘 '미운 우리 새끼' 최대 화제는 가수 김중국이 책임지고 있다. 김건모-이상민이 주도하던 화제를 김중국이 이어받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



▲ 미운우리새끼 '김중국' 편

난 2월25일 방송부터 출연하고 있는 김중국은 42년 평생 처음으로 집에서 독립하면서 이 관찰 예능에 참여했다.

그는 '말로만 듣던' 엄청난 절약 정신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탈장 수술을 받는 부분도 공개하면서 기존 출연자들과는 또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물값, 휴지값을 따지고, 집안 불을 소등하며 전기값을 아끼는 김중국의 절약 정신은 웃음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간은 이상민이 엄청난 빛의 무게로 인해, '타의'에 의해 조절하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김중국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절약 DNA'로 무장해 생활하는 모습은 부모 세대에게는 공감을 일으키고 자식 세대에게는 '신세계'와 같은 불거리를 제공한다.

그에게 집중된 관심은 급기야 지난 8일 김중민이 김중국의 집을 찾아 오징어 먹물 수타면을 만들어주겠다고 법석을 떠는 내용에서 '미운 우리 새끼'가 시청률 20% 고지를 다시 밟게 됐다.

기존 출연진도 여전히 '제몫'을 한다. '재미'를 인생의 모토로 삼은 김건모는 대화 생각지도 못한 희한하고 독특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박수홍 역시 윤정수, 홍진영 등 동료 친구들과 함께 아가자기한 에피소드를 끊임없이 이어간다.

'궁상민' 이상민이 방송활동이 활발한 것에 자신감

을 얻어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어보려고 도전했다가 여전히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절하는 에피소드 등은 '각본없는 드라마'다. 토니 안은 샘 오취리와 함께 저 먼 아프리카 가나까지 원정을 다녀오기도 했다.

◇ 순박하고 정겨운 '엄마'들 ... 적절한 게스트 투입도 맛 살려

SBS는 지난 연말 '2017 SBS 연예대상'을 유재석, 신동엽, 김병만이 아닌 '미운 우리 새끼'의 '엄마'들에게 안겼다. 김건모의 어머니 이선미 씨, 박수홍의 어머니 지인숙 씨, 토니 안의 어머니 이옥진 씨, 이상민의 어머니 임여순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미운 우리 새끼'가 현존 최고 예능이 되는 데는 이들 '엄마' 출연자들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엄마들이 넣는 주입새와 솔직한 감정 표현, 정겹고 푸근한 태도와 반응이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경직된 모습을 숨기지 못했던 엄마들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보여주며 한층 프로그램에 활기를 준다. 사실은 '할머니'뻔한 엄마들이 여전히 다 큰 아들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고, MC인 신동엽-서장훈과 주머니 버거니 농담을 하고 입씨름을 하는 모습은 도란도란 정겨운 사랑방을 관찰하는 느낌이다. /연합뉴스

이창동 감독 신작 '버닝' 칸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다음달 황금종려상 주목 한국 작품 3년 연속 진출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다음달 열리는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윤종빈 감독의 '공작'은 비경쟁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선보인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을 비롯한 공식 부문 초청작 목록을 발표했다.

공식 초청작 중 경쟁 부문에서는 '버닝'을 포함해 18편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다툰다. 그밖에 '비경쟁'(Out of Competition) 2편, '주목할 만한 시선' 15편, '스페셜 스크리닝' 7편, '미드나잇 스크리닝' 2편이 각각 선정됐다.

'버닝'은 장 퓌 고다르 감독의 '르 리브르 디마주', 스페이크 리 감독의 '블랙 클랜스맨' 등과 함께 경쟁 부문 초청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권 작품으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만비키 가족', 지아장커 감독의 '애쉬 이즈 퓨어스트 화이트' 등이 경쟁 부문에 포함됐다.

'버닝'은 이창동 감독이 '시'(2010)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유동희사 알바생 종수(유아인 분)가 어릴 적 동네 친구 해미(전종서)를 만나고,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남자 벤(스티븐 연)을 소개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했다.

이창동 감독은 2000년 '박하사탕'이 감독주간에 초청되며 칸과 인연을 맺었다. 경쟁 부문 진출은 2007년 '밀양'과 2010년 '시'에 이어 세 번째다. 이창동 감독은 '밀양'으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겼고, '시'로는 각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칸영화제에서는 비평가주간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지난해 홍상수 감독의 '그 후'와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경쟁 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한국 감독의 작품이 3년 연속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종빈 감독의 '공작'은 장르영화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을 선보이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된다. 북핵의 실재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간 은밀한 거래를 감시하면서 벌어지는 첩보극이다. 황정민·이성민·조진웅·주지훈이 주연했다.

윤종빈 감독은 중앙대 영화학과 졸업작품인 '용서받지 못한 자'로 2006년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며 일찌감치 칸의 눈도장을 받았다. 이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군도: 민란의 시대', '검사외전' 등을 연출했다. 제71회 칸영화제는 다음달 8~19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이란의 아쉬카르 파라디 감독이 연출한 '에브리바디 노우즈'가 선정됐고,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옥자'로 논란이 된 넷플릭스 영화를 올해부터 경쟁 부문에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관련 다큐 영화 '그날, 바다' 15만 관객 돌파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가 잔잔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봉한 '그날, 바다'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5만 명 고지를 넘었다. 이런 성적은 '공범자들'(최종 관객 26만 명), '무한, 두 도시 이야기'(최종 19만3천 명)에 이어 정치시사 다큐로는 흥행

순위 세 번째에 해당한다.

김지영 감독의 '그날, 바다'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를 분석해 침몰 원인을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4년 간 취재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아래 사고 시뮬레이션 장면을 재현해냈고,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UHD다큐멘터리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 초청 토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우리가 만난 기적(재)	2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위대한 유혹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kbc 전라도정도천년 대토론회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천상의 컬렉션 (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뽀뽀뽀 모두야 놀자	
2	50 UHD 슈퍼 (재) 55 중계방송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 추도식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00 좌충우돌 만국유망기 55 중계방송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 추도식	00 뉴스브리핑
3		00 공동부활상 위키 2 30 TV 유지원		00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 추도식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랭킹쇼 1,2,3 스페셜 55 뉴스콘서트	00 2018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자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55 전생애 멘수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우리말 겨우기	50 인형의 집	35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선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특집 KBS 뉴스 9 30 KBS 뉴스 9(광주) 45 특집 KBS 뉴스 9			
10	00 세월호 4주기 추모 음악회 기억 그리고 다시 봄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10 안병하세요	10 특집 MBC 스페셜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할스(재)	35 비바 K리그	20 스포츠 다이아리 35 가요베스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4:30 똑딱맨	19:3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 1부 동부 사람이 사는 법)	09:40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00 한국기행(재)	10:30 한국기행(재)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대기행 (우리가 몰랐던 이란 1부 마술 같은 시간여행, 마술레)
06:20 세계대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토마토소스와 토마토 우삼겹 된장찌개>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봄, 비바다 1부 달콤 쌈싸름하니 봄>
07:00 플라워링 하트	11:20 세계대기행(재)	16:00 방랑고 나라, 코코콩	21:50 EBS 다큐프라임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옹감한 소망차 레이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07:45 출동! 슈퍼맘스2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55 엄마를 찾자마
08:00 덩동명 유치원 1~2	13:00 다큐 오늘 <낙타의 소금길>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24:45 지식채널e
08:30 허풍선이 과학쇼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7:15 로보카 폴리	24:50 세계의 드라마 <포 더 피플 3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7:30 마사와 곰	
09:00 언캐티		17:45 띠띠뽀 띠띠뽀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4	
		19:00 스파이더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6일(음 3월 1일 戊寅)

子	36년생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이다. 48년생 순리를 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0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72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84년생 의식을 달리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2, 56	午	42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두되 되는 판세이다. 54년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하라. 66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 없으니라. 78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90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09
丑	37년생 가까스로 반전 되어가고 있다. 49년생 반복되어질 수도 있는 도대이다. 61년생 현실을 지시하지 못한다면 괴멸을 부를 뿐이다. 73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85년생 상징성을 이해해야 속뜻을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70	未	43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써라. 55년생 좀 더 큰 구도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 틀림없다. 67년생 털어 놓고 상의해 본다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79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91년생 세밀하게 재검토 하자. 행운의 숫자 : 71, 45
寅	38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다. 50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62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아. 74년생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86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2, 31	申	44년생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56년생 상대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하리라. 68년생 급하게 돌아가는 동세다. 80년생 시장과 행태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면 그만이다. 92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57, 80
卯	39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51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75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7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63, 23	酉	45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속명의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다. 69년생 무모함을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81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93년생 아차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7, 60
辰	40년생 경중은 저울로 달아 봐야 한다. 52년생 합리적으로 인내해야만 만사가 행동하리라. 64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겠다. 76년생 중요한 기회들이니 잘 활용해 보아라. 88년생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4, 84	戌	34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수 요청된다. 46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70년생 속단은 후회나 실패를 끌고 올 것이다. 82년생 양자의 차이가 큼을 감안 하자. 행운의 숫자 : 77, 78
巳	41년생 필수적인 점검 사항을 명심하라. 53년생 소망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65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77년생 중도가 가장 무방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89년생 아슬하게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다. 행운의 숫자 : 14, 15	亥	35년생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47년생 판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함이 보인다. 59년생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라. 71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라. 83년생 흔들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행운의 숫자 : 88,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